
2020년 제6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1. 31. ~ 2. 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1. 30.	시청률	0.031

【총 평】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18회 방송은 지난해 12월14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해 20여 대 연쇄추돌로 7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낸 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계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진단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겨울철 기후 변화로 인해 벌어지는 도로 위 위험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으로써 '겨울철 도로의 불청객, 살얼음!'편을 다뤘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가 대형 차량사고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를 '도로 살얼음 생성원리'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살얼음의 위험성을 담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도 살펴보았다. 시의성 있는 아이템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익함을 주었다.

살얼음 도로의 운전자 위협, 살얼음 교통사고에 대한 전국 각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 다양한 살얼음 교통사고 유형, 운전자와 도로공사 간의 안전 대책 등을 완성도 있게 구성하였다.

【구성 및 내용】

'겨울철 도로의 불청객, 살얼음!'편에서는 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캠페인 효과가 기대됐다. 살얼음 교통사고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과 운전자 대비 요령과 안전 수칙을 다루었다. 교통사고의 경우 무엇보다도 운전자 본인의 '과할 정도로 안전을 우선에 두는 행동요령'이 중요한 만큼 이런 점을 잘 반영해 내용을 구성했다.

사고 운전자의 인터뷰와 영상, 경찰서 제공 영상이 리얼해 살얼음 사고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준 점이 경각심을 제고했다. 살얼음 도로에서의 실험운전을 통해 제동거리, 브레이크 작동 불가능 상황을 실제로 보여준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도로 살얼음 생성원리를 설명한 뒤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으며,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리 확보, 타이어 등 차량 안전점검, 도로상황 집중관리, 응급제설 작업, 운전자 본인의 안전의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근 5년간 살얼음 사고로 706명이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고 살얼음 도로는 미끄럼 정도가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의 6배 이상 더 높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영하 5도면 얼음 얼었다고 생각해 주의하겠으나 낮엔 영상, 밤에 영하'인 이런 날씨가 가장 위험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형이나 주변 시설에 따라 얼음 어는 정도 달라, 절대기온만 믿어선 안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기온이 살얼음 사고가 나기 가장 좋은 조건임을 소개하며, 강하게 주의를 당부했는데, 춥지 않은 겨울이라는 점, 그리고 2월 날씨 특수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2. 1.	시청률	0.041

【총 평】

오늘 내용은 전형적인 지자체와 주민이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였다. 경북 칠곡군의 유명무실한 터널을 국비지원으로 확장시킨 사례와 경기도 이천시의 일제시대에 이뤄진 지적조사 이후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 현황이 상이해 지적재조사를 통한 주민갈등 해결사례를 소개해주었다. 특히, 이천시 사례는 일제 강점기의 지적 측량사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여서 더 의미가 컸다. 경북 칠곡군과 경기도 이천시 사례는 동일하게 잘못된 지적 작업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있었던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유명무실 터널도로 국비확보

경북 칠곡군에 유명무실한 '터널도로'가 있어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국비를 확보하여 2022년 신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좁은 터널임을 강조하기 위해 두 행인이 직접 그 곳을 통과하는 모습이나 진입하던 차량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 등도 생생하게 잘 담아내어 생활 속 불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터널도로의 불편함은 이장과 군수가 번갈아 등장해서 그 불편사항이 충분히 인터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확장 사업의 근거도 더욱 신빙성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터널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다면 생활동선이 상당히 줄어들어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칠곡군청과 주민이 수차례 협의했고 이를 통해 국토부 개선사업비 30억 원 이상 지원 확정했고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 발주했고 2022년 사업 완료예정이다.

■ 낡은 지적도 바로잡아 20년 경계분쟁 해결

일제시대에 진행된 지적조사 당시 종이지적도를 비롯하여 기준점, 축척이 제각각으로 이뤄져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한 마을의 경우 15년 동안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서 10여 가구가 재건축, 부동산 매매행사에 제한, 경계분쟁으로 이웃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이천시는 2018년부터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담당자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합의를 도출하였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에서 지적 재조사 전담팀을 꾸려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왔는지도 명확히 잘 드러났다.

또 다른 마을의 경우 국도가 사유지에 속하여 확장공사를 할 수 없어 버스가 간신히 다닐 수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국유지로 변경하고 도로 확장 계획을 사전 조정하여 대형 마을버스가 통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2. 2.	시청률	0.088

【총 평】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방침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배경과 함께 찬반 논란을 상세하게 다뤄 설득력을 높인 기획이 돋보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빠른 알림이 역할과 정부 발표에 맞춘 시의성이 적절했다.

초등학교 소년 테러사건 사례를 통해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촉법소년이란 사유로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로 초반 주목도를 높인 구성이 눈길을 모았다.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서고 교육부의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침 등을 설명해 여론과 정부 방침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구성이 적절했다.

특히 교육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에 반대되는 측면을 다양하게 소개해 형평성을 유지한 점이 긍정적이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사례를 제시하고 소년 범죄 처벌에 관한 해외사례를 소개한 점도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

【구성 및 내용】

<PD 리포트 이슈 본> 제285회는 촉법소년(=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이 없는 자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해당하는 연령대 범죄자를 일컬음) 연령 하향 건을 다룬 “무서운 10대들, 어리면 용서되나요?”편을 방송하였다.

018년 대전 소재의 한 초등학생 소년테러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미성년자 범죄 유형과 범죄 심각성을 다루면서 미성년자 형사 처벌 관련한 연령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했고, 논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을 상세히 다뤄 시청자들의 판단과 이해를 도왔다. 찬성이유로는 1953년 제정 당시에 비해 소년들의 신체발육과 정신연령이 높아진 점,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재범이 양산되고 비교육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에 반대되는 측면을 다양하게 소개해 형평성을 유지한 점이 긍정적이다. 소년법은 응징보다는 선도와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와 학교, 사회, 국가가 이에 적극 나서며 사회적 환경조성도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돼 설득력을 높였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흉포화 되는데 입법활동을 게을리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관련한 연구 논문 결과와 설문조사 통계를 제시한 추가 구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2.	시청률	0.111

【총 평】

전북 진안군 백운면으로 귀농한지 26년차가 되는 정경교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외향선원에서 무술인 그리고 오가피 농부로의 변신이라는 예상롭지 않은 소재가 호기심을 자극했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색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었다. 무예와 오가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경교씨의 무예연마와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오가피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주인공의 특기인 무술 실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더 차별화된 면이 있고 특히,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했고 후반부에 아들이 등장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 하는 투샷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다.

【구성 및 내용】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한가지만 있어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어울려 좋아하는 무술과 자신만의 삶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향기를 보여주었다.

■ 주택 소개와 무공 소개

귀농 26년차의 천년무림 영웅문의 문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각종 대회 수상 이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농사짓는 모습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집 내부를 소개하고 수 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 젊은 시절 회상 & 가시오가피 농사 소개

선원 생활을 하던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무술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을 자연스럽게 언급했고 선원 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귀촌을 고려하고 또 가시오가피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내용도 진솔하게 와 닿았고 농사에 대한 소신도 충분히 밝혀 주었다.

■ 집수리와 소소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대금을 불고 가축을 돌보고 집을 수리하는 소소한 일상의 생활 풍경들이 도시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어서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또, 처음 집의 지붕을 만들 때 벅찬 기분을 언급하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는데 혼자서 집을 완성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다.

■ 아들의 방문

아들이 찾아오면서 귀촌 생활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소개했고 아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상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신경을 쓰지 않아 아쉬워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버지 일을 돕고 같이 무술을 연마하는 모습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2. 3.	시청률	0.000

【총 평】

이번 <국민리포트>는 다양한 소재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에 한식을 알리는 한식연구가 인터뷰, 한글을 공부해 자서전까지 낸 노인들, 국민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의 DJ 방송사연, 그림같은 일몰을 담은 태안해변의 영상구성 등이 잘 짜여져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차민욱 한식연구가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 한식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또, 노인들이 한글을 익혀 자서전까지 냈다는 사연은 가슴뭉클한 감동을 선사했고, 명절 무렵 관광객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방송하는 전주 한옥마을방송국의 모습은 7080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소재로 흡인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영상구성 '한국의 미'에서는 서해안 일몰의 명소 꽃지해수욕장의 낙조를 영상에 담아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구성 및 내용】

■ 국민인터뷰 “한식을 세계로!” 차민욱 한식 연구가

한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로 한국의 식문화를 통틀어 한식이라고 정의할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식을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요리하는 과정과 해당 음식을 왜 만드는지 생각하는 것이 한식 조리 기본이라고 하였다.

■ 글 배우니 세상이 달라 보여... '내 인생 책에 담아'

뒤 늦게 한글을 배운 어머니들의 자서전이 전시되었다. 서툰고 뽀뽀뽀뽀한 글씨 속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솔한 글이 전시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시에 있게 됐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 이들이 써내려간 158편의 글들에 대한 전시회, '내 인생의 첫 번째 책'이 열렸다. 이들의 글들을 글쓴이의 자신감과 행복감을 자유롭게 잘 표현해 주었다. 특히, 노년에 한글을 익혀 자서전을 냈다는 감동어린 리포트를 백발이 성성한 노년층 김윤종 국민기자가 담당해 메시지 전달력이 살아났다.

■ 전주 한옥마을 '현장 방송' 인기몰이

전주 한옥마을 방송국이 만들어졌다. 관광객들이 엽서에 사연을 적어 DJ에게 전달하면 DJ가 신청곡과 사연을 읽어준다. 방송실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관광객들도 수시로 참여하고 있고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추억을 선사하며 한옥마을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 한국의 美 - 겨울의 태안

겨울 태안의 바닷가 풍경, 서해안 일몰의 명소 꽃지해수욕장의 낙조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았다.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2. 3.	시청률	0.082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88회 방송은 ‘안전 빠진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제로, 언론의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왜곡 보도를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이었다.

국토부가 세계 최초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왜곡과 무지에서 빚어진 오해였음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 상용화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 언론의 논란 등을 명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시원한 팩트 체크를 해주었다.

현재 대기업과 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춰 일부 도로에서 운행 중인 85대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우려와 오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지역과 안전운행 요건,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인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운행 시험 단계를 거쳐 첨단자동차 시대를 열기 위해 대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오늘 팩트 체크 주제는 “안전 빠진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으로, 체크 포인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미지수, 3단계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무의미’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과실 or 결함 책임 기준 없다’ 등이었다. 특히,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근거로 자율주행차 정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한 점은 아이디어가 깊은 기획이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노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사업으로 발전할 자율주행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언론의 논란 등을 팩트 체크 하였다.

또, 미래 자동차의 역할, 자율주행차 이점, 교통사고 줄이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차, 그렇다면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상황,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에 대한 우려와 오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지역과 안전운행 요건 등을 살펴보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안심해도 되나?’를 중심으로 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소개했으며, 단계별 운행기술 및 규정 등을 통해 상용화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의문점으로 이 팩트 체크는 현실적인 공감대 많았으며, 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자동차 기술이 지금은 거의 공통화 됐지만 미국처럼 국토가 넓고 도로 여유롭고 운행이 수월한 상태에서의 기술 개발과 ‘우리처럼 도로가 좁고 차도 보행자도 많은 환경 속에서의 개발’은 비교할 만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2. 4.	시청률	0.145

【총 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경제 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KTV대한뉴스>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국가 재난방송의 역할 수행으로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제고한 점이 돋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추가 발생, 입국제한, 인천공항 표정 등 현장성과 속보성 있는 정보 제공이 국민들에게 방역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고 방역과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다각도로 다뤄 국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아이템을 연계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구성이 좋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지적한 점도 시청자들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유익한 정보였다.

【구성 및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경제 등을 위협해 확산 방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획이 탁월했다. 확진자 추가발생, 정부의 긴밀한 대응책 마련, 방역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달한 점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높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아이템을 연계 보도해 심층성을 높이는 뉴스 편집이 돋보였다. 주요 뉴스로 상세보도한 뒤 <더 MORE 뉴스>와 <뉴스링크>, <유용화의 오늘의 눈>, <오늘의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 리포트와 현장 녹취 구성으로 경제충격 최소화, 대응책 마련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 “경제 충격 최소화…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문대통령은 제 5회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긴장감 감도는 인천공항…꼼꼼해진 입국 절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가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들의 입국절차 또한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면제가 시행된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업종, 그리고 핀테크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 ‘저작권 비전 2030’…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및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구축,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